

제 목	국 문	흡연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영 문	The Effect of Smoking on Health Service Utiliz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지선하 ¹⁾ , 김일순 ¹⁾²⁾ , 서 일 ¹⁾²⁾ 1)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Sun Ha Jee, Il Soon Kim and, Il Suh		
분 야		건강관련행태	발 표 자	지 선 하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흡연은 모든 조기사망과 질병이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인자라고 규정된 바 있다. 최근 의료비 증가가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흡연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에 질병의 이환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에 입원 및 외래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자료 :

연구자료는 198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국민건강조사자료이며 그 중 흡연조사가 실시되었던 5,201명과 연결되는 질병이환 및 의료이용자료를 이용하였다.

나. 연구에 사용된 변수 :

독립변수는 남자인 경우 흡연여부, 흡연량, 흡연시작연령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흡연율이 낮아 흡연여부만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두개의 종속변수에 의해 설계되었다. 질병이환이 종속변수인 경우 만성질환 이환여부와 급성질환 이환여부에 따라 분석하고, 의료이용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 분석방법 :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분석은 두단계에 의해 진행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흡연에 의한 질병이환과 의료이용 변화를 관찰한 단일변량분석, 두번째 단계는 질병이환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통제하고 흡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비교정도형에서 과거흡연자는 급성질환 및 만성 질환이환이 많았으며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와 차이가 없었다. 입원이용은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많았다. 외래이용은 과거흡연자에서는 많았으나 현재흡연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인 경우 치료일수는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나. 다변수로지스틱 모형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급성질환은 남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과거흡연자에서 1.9배, 여자의 경우 현재흡연자에서 1.7배 많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 흡연시작연령은 18세 이하인 경우가 2.4배 많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성질환은 남,여 공히 과거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 현재흡연자의 흡연시작연령이 18세 이하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6배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 입원이용은 남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에서 1.4배, 현재흡연자에서 1.2배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자 과거흡연자의 흡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의 입원이용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3.9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외래이용은 과거흡연자의 경우 외래이용이 2.1배, 과거흡연자중 건강에 관심이 있는 3.4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현재흡연자의 경우는 외래이용이 1.1배, 그리고 건강관심이 있는 경우 1.7배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남자 과거흡연자의 흡연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2.6배, 그리고 남자흡연시작 연령이 18세 이하인 경우 외래이용이 2.3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현재흡연자에서 입원이용이 2.5배, 외래이용이 1.5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라. 가중회귀분석 모형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남자 외래치료일수가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여자의 경우는 흡연여부별 치료일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고찰

이 연구자료는 전국에서 군집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것이므로 동일연령층에 대해서 자료의 대표성은 있으나 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원인-결과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보다는 과거흡연자에서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이 많았다. 이는 현재흡연자가 질병에 이환되어 건강에 나빠질 경우 금연하게 됨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